

# 주북한 소련 군사고문단 연구

심현용(군사편찬연구소)

## 논문 요약

본고는 주북 소련 군사고문단의 조직과 활동내용에 대한 국내외 연구경향과 연구성과를 검토하는 데 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데, 그 이유는 자체 조직에 대한 종합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소련은 대외 군사협력의 수단이자 주체로 군사고문단을 운용해 왔다. 소련 군사고문단은 광복된 북한에서도 북한군 건설과 무장력 증강 그리고 군사간부 양성에 힘썼다. 특히 6·25전쟁에서는 전쟁기획과 수행단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소련이 한국전에 개입했다는 또 하나의 사례다.

1951년 2월 16일자 라주바예프의 보고서에는 북한군 내 '전투활동사 기술(記述)' 임무를 띤 장교가 33명 존재한다고 밝혔다. 군사고문단 조직에 대한 종합평가서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조속한 발굴로 연구축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주제어 : 6·25전쟁, 소련 군사고문단, 슈티코프, 라주바예프, 전투활동사, 기술(記述) 장교, 소비에트 군사전문가 양성시스템

## I. 들어가는 말

광복 후 6·25전쟁 시기까지 한반도에서 진행된 외국군의 군사전개는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남북한에 진주하여 각각 자국에 유리한 국가체제 및 군대를 건설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소련과 미국은 자국으로 신생국 군사자원을 초청하거나 자국 전문가를 직접 파견하여 군사전문가를 양성하고 건군의 물적 기반을 다지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전시에는 작전수립 및 전쟁지도 그리고 군사장비 및 무기를 지원하고 운용하는데 협력을 마다하지 않았다.

신생국 남북한에 영향을 준 미국과 소련의 군사협력은 그 역할이 컸지만, 정작 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주무 기관인 군사고문단에 대한 국내외 학계의 연구성과는 그리 많지 않다. 미국의 경우 주한미군사고문단에 대한 연구가 벌써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다. 1958년 미 육군부 군사연구실 주관 아래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역사(History of KMAG)』가 편찬되어 편찬자 소이어(Sawyer R. K.)가 담당한 부분은 1962년, 그리고 마이어(Myers K. W.)가 담당한 부분은 1971년 7월 각각 비밀해제와 더불어 발간되었다. 그 외 전, 현직 군사고문관을 대상으로 한 증언과 설문을 정리한 글 및 입문서<sup>1)</sup> 등이 출간되어 소련과는 달리 문서해제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의 미 군사고문단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였다.<sup>2)</sup>

소련 군사고문단에 대한 연구는 중국에서 활동한 역사가 이미 정리되었다.

1) Hausrath, A. H., *The KMAG Advisor : Role and Problems of the Military Advisor in Developing an Indigenous Army Combat Operations in Korea*. Operations Research Offic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7; Skaggs D.C. and Weinert R.P., *American Military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rmy 1951-1965*, undated.

2) 조이현, "1948-49년 주한미군의 철수와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활동." 서울대학교 군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안정애, "주한미군사고문단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정토용, "1945-1948년 미군정시대 한국인 창군주역들과 미국 군사고문들 간의 협력과 갈등." 『군사』 43호, 2001, pp. 65~100; 박동찬, "한국전쟁기 미국의 증강구상과 장교교육의 강화." 『군사』 제39호, 1999, pp. 163~197; 박동찬, "전쟁기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활동."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조직과 활동." 한양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류계승, 『6·25,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서울: 책세상, 2013, 4장.

비록 1920년대 중국에서 활동한 사례이지만 독일 하인치히(Dieter Heinzig)는 『중국 공산당과 소련군사고문단 1923-1927』 이란 책으로 그 역사를 규명했던 것이다.<sup>3)</sup> 그러나 주북한 소련 군사고문단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소련 국방부의 대외협력 주무기관인 군사고문단(Группа вое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이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한 기간은 1948년 12월, 조직이 법제화된 이후부터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소련군의 철군이 결정된 시기까지이다. 그러나 소련 군사고문단이 북한에서 활동한 실제 기간은 제1대 군사고문단장 스미르노프(Смирнов ИИ)가 입국한 1946년 9월부터 소련 군사고문단이 완전히 철수한 1957년 5월까지로 확대해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소련 군사고문단은 북한군 건설과 군사력 증강, 군사전문가 양성 그리고 군사무기 및 장비 제공과 운영,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지도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다하였다.

한국 현대사에서 소련 군사고문단이 끼친 역할이 막대함에도 이에 대한 국내 학계의 연구는 미진하였다.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 적대적 갈등의 역사를 들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진영 간의 구조화된 ‘냉전구조’와 고착화된 ‘냉전의식’은 정치분야의 활동가만이 아니라 학술분야의 연구자가 지녀야 할 주체의식마저 마비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더 실제적인 이유는 정작 소련 국방부 공식기관의 활동사료가 존안된 문서보관소의 1차사료에 대한 접근과 조사연구가 이념적 공방에 묻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행스럽게도 1990년대 이래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주변국 간에 전개된 화해 협력에 힘입어 과거 적대국이었던 러시아 군사자료가 공개되고 있으며,<sup>4)</sup> 그 결과 6·25전쟁과 같이 소련이 깊숙이 관여하고 직접 공군력까지 참전시킨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게다가 소련 군사고문단이 전쟁개시를 결정한 지도

부 입장에 따라 전쟁을 기획하고 지도한 실제 주무조직으로서 그 조직적 실체와 역할 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에서의 경우 2001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번역출간한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와 그에 상당부분 활용된 『6·25전쟁사 1』 등은 국내 학계에 소련 군사고문단이 제출한 각종 보고서를 근거로 광복 후 북한과 6·25전쟁의 실체에 대한 많은 의문 사안을 해소시켜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정작 소련 국방부 대외협력의 주무조직의 하나인 군사고문단이란 조직 그 자체의 설립목표, 작동원리, 조직 구성 그리고 주요 역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와 분석이 미흡한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최근 북한군 각 부대에 배치된 소련 군사고문단 단원 중 부대의 ‘전투활동사 기술(記述)’ 임무를 부여받은 단원이 있음을 밝히며, 그들의 임무 특성상 군사고문단 조직 그 자체에 대한 종합보고서가 필수적으로 작성했을 것으로 확신하고 공개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연구 내지 조사연구된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 학계에서 진전된 소련 군사고문단에 관한 연구경향(II장)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성과를 사안별로 재정리(III~IV장)해 연구공백 부분과 사료발굴 필요성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 II. 소련 군사고문단에 대한 연구경향

냉전으로 인해 연구자의 주체의식이 마비되었다하더라도 소련 군사고문단에 관한 논의나 연구성과가 전무했던 것도 아니다. 비록 소비에트 사회주의가 서방의 자유주의와 대립각을 세우던 시기였지만 소련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사실 그 자체(historical facts in itself)로 기록하거나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록내용 속에 한반도 북부에서 운용한 소련 군사고문단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였다.

3) 류제승, 위의 책, p. 125.

4) 러시아에서 공개된 자료 현황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시오. 심현용, “한국에서의 625전쟁 연구경향.” 심현용-가브리엘로프(공편), 『6·25전쟁 연구경향 및 사료해제(Кризиса войн 1950-1953 гг.: История и архивы)』,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pp. 22~25.

1959년 소련 국방부는, 비록 발간하지 않은 내부 참고자료 형태였지만, 『한국 전쟁 1950-1953』을 편찬해 교범으로 활용해 왔다. 이때 한반도 전쟁에서 소련 군사고문관과 군사전문가들이 미군을 상대로 작전과 전술 그리고 신무기를 적용하고 시험해 본 전쟁 경험을 사실적으로 기록했던 것이다.<sup>5)</sup> 10년 후인 1969년에는 북한이 소위 ‘주체’의 발전을 내세워 소련의 대규모 원조를 외면하고 모든 성과를 자체적으로 이룩한 것으로 왜곡하자, 당시 소련에서는 6·25전쟁 당시 소련군의 지원 내지 참전 사실을 진실 규명 차원에서 폭로하기도 하였다. 소련 외교관 카피차(Калин М.С.)는 소련이 한국전 당시 북한과 중국에 군사고문단과 전투비행단을 파견하는 등 군사지원을 하였으며, 심지어 전황이 악화될 시 5개의 기갑사단까지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sup>6)</sup>

이상과 같이 소련(정부)이(가) 발표한 사례들은 적대적 냉전의식이 대치하던 상황 속에서 진영 내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한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발표 수위는 폭로 차원에서 단편적인 연구성적을 드러내는 정도였지, 자신들의 6·25전쟁 참전 그 자체를 부정하던 소비에트 정부의 정치적, 외교적 기조와 성격에서 벗어나면서까지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소련 군사고문단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냉전시대 대립적 진영의 한 축을 담당했던 미국 내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1973년 미국에서는 6·25전쟁 당시 소련 군사고문단이 활동했음을 주한 미군사고문단(KMAG) 정보참모부가 작성한 정기보고서(G-2, Periodic Report)를 통해 밝혀냈다. 스텔마흐(Stelmach D. S.)는 소련 전차전술이 6·25전쟁에서 운용된 문제를 박사학위논문으로 작성하면서<sup>7)</sup> 미군사고문단의 정보자료 속에 포함된 소련 군사고문단 관련 사항을 학술적 논의 대상으로 끌어들이었다. 당시 미군이 수집한 공산군측 정보자료가 열람될 수 있었던

것은 1960년대 수정주의론과 반전인권운동의 대상으로 미국 대외정책이 도마에 오르자 불신해소 차원에서 자료공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sup>8)</sup>

러시아에서 소련의 대외 군사활동에 관한 문서가 공개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의 영향이 컸다. 그 동안 ‘금기’의 영역이었던 소비에트 군사사가 역사의 영역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소비에트 정책에 연루되었던 정치희생자 및 피탄압 민족구성원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당사자의 회고록이나 인터뷰 기사 또는 구술자료 등이 고통스런 역사를 토로해냄으로써 소련 군사고문단에 대한 내용도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한국 학계의 연구는 소련 군사고문단의 활동에 대한 소개가 뉴욕에서 발간되었던 “The Reporter” 기사를 1988년 번역됨으로써 시작되었다.<sup>9)</sup> 이 기사는 소련 군사고문단의 일원이었던 칼리노프(Калинов К.) 중령이 6·25전쟁이 발발한 지 4개월이 지난 1950년 10월, 북·소 군사협력 일환으로 북한의 군사력 건설에 참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기사가 나간 이후 한동안 소련 군사고문단에 대한 소개나 연구는 전무했다. 그러던 중 1992년, 러시아국방부 군사사연구소(ИВИМОРФ) 소속 선임연구원인 꼬르트코프 박사가 특수선전전 장교로 대일전 및 북한 진주 작전에 참가하면서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 일부를 국내에 출간하면서<sup>10)</sup> 소련 군사고문단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켰다. 그가 공개한 6·25전쟁 당시 작성된 ‘선제타격계획’ 지도는 소련 군사고문단이 작성한 것이어서 전쟁 불개입 입장의 소련의 실체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5) 이 책은 소련이 붕괴된 이후 2003년 일반 대중서로 출간되었다. *Війна в Кореї 1950-1953, Сб. : Укр. Гістор. 2003.*

6) Калин М. С. КНР : два десятилетия — две войны, М., 1969.

7) Stelmach, Daniel S., *The Influence of Russian Armored Tactics on the North Korean Invasion of 1950*. Ph. D. Thesis, Department of History, Saint Louis Univ., 1973.

8) 주한 미군사고문단 보고서 중 정보일지는 1989년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가 입수하여 자료집으로 편찬하였다. HQ, USAFIK, *Record Group 319, G-2 Periodic Report(1945, 9 - 1949, 6)*, Suitland, Md. : Federal Records Center Annex.(영인본 : 『주한미군 정보일지』 1-8권,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8-1989); HQ, USMAGIK, *G-2 Periodic Report(1949, 7. 26 - 1950, 6. 15)*, (영인본 : 『주한미군사고문단 정보일지』 1-2권,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9) Kyrio Kalinov, “How Russian Built the North Korean Army ?” *The Reporter* (26 October, 1950); K. 칼리노프, “소련은 어떻게 북한인민군을 건설했는가?” 『북한』, 1988, 6월호; 장준의,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p. 157.

10) 꼬르트코프(Куртцов Г. И.), 어견주 역, 『스탈린과 김일성』 상하, 서울: 동아일보사, 1992.

마침내 엘친 러시아대통령이 1992년 보존시기가 경과한 사료를 '문서작성 시기와 성격에 관계없이 해제'하라는 대통령령을 내리자,<sup>11)</sup> 그동안 봉인되었던 문서보관소 사료 500만 건 이상이 1992-1995년間に 해제되어 대방출되었다. 그 중 6·25전쟁 관련 문서 216건 548쪽이 1994년 김영삼 대한민국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시 한국에 전달되었다. 이 문서들은 "한국전쟁 관련 극비 소련 외교문서"란(이하 외교문서) 명칭으로 소련 군사고문단이 활동한 내용 혹은 그들이 수집 보고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러시아정부의 비밀문서 해제라는 정책 방침에 발맞춰 러시아 국영방송국에 르페에르(RTR)는 1995년 <38도선 : 소련 군사고문단의 한국전 참전>이란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제작 방영하였다. 나체즈다 영화비디오제작스튜디오에서 베를린(Берлин А.)의 연출로 제작된 이 영상물은 전쟁 참여 당사자의 생생한 증언을 들려줌으로써 소련 군사고문단이 북한에서 어떻게 활동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었다.<sup>12)</sup>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공개한, 혹은 방송보도한 소련 군사고문단의 활동에 대한 내용은 군사고문단의 활동사실을 뒷받침해 줄지언정 소련 군사고문단 그 자체의 활동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대변해 주지는 않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학계에서는 소련 1차 원사료를 활용하여 소련 군사고문단이 한반도에서 활동한 내용을 연구한 논문 및 저작 등이 등장하였다.<sup>13)</sup> 여기에 동원된 자료는 앞서 언급된 주한 미군사고문단의 정보참모부가 작성한 정기보고서나 이른바 <외교문서>로 불리는 한국정부에 전달된 소련 문서보관소 사료들이다. 연구내용을 정리해 보면, 소련의 대북정책, 그 중에서도 북한인민

군 건설과 무장에 따른 군사지원 과정과 그리고 그 맥락에서 전개된 군사고문단의 활동 등이 분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상적인 것은 광복 후부터 6·25전쟁 시기까지 전개된 소련군의 의 대부분은 소련 군사고문단의 활동과 중첩된다는 점이다. 소련군이 북한인민군의 건군과 성장,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전시 각 단계마다 지도한 내용은 곧 소련 군사고문단의 북한 내 활동사와 그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성과가 소련 군사고문단 조직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온전하게 도모해 주는 것은 아니다. 소련 군사고문단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소련이 대북한 군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군사지원을 촉진한 주무기관의 활동 형태를 언급하는 정도이며, 또는 6·25전쟁을 준비하고 진행된 상황에 맞게 군사고문단이 투입된 규모나 그들이 수행한 역할을 소개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소련 군사고문단의 조직 그 자체의 활동을 활동기간에 맞춰 전체적으로 종합 연구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었다. 만일 소련 군사고문단 활동이 북한에서 전개된 군사고문단 조직활동의 전체 상으로 정리만 된다면, 소련 정부의 대북한과 대동아시아 정책도 역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보아도 여전히 연구성과는 미흡한 듯하다.

2001년 대한민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러시아 국방부 군사사연구소와 중앙문서보관소의 협조 하에 번역 편찬한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전4권)라는 자료집을 번역편찬해 냈다. 6·25전쟁 시기에 군사고문단장을 역임했던 라주바예프 명의로 발간되어 소련이 6·25전쟁에 관여한 전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자료집은 소련의 입장과 시각에서 '관심 갖는 특정국면 위주로 기록'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미화 내지 과장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비판적 독해가 필요하다<sup>14)</sup> 지적이지만 6·25전쟁의 전체적 상황을 "소련 군사고문단 236명이 ... 실질적으로 (전쟁에) 관여한 기록"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할 것은 러시아 문서보관소에 소장된 사료 중 아직도 공개

11)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 снятии ограничений профес с эконоисчнх и инх асов служник для масовх ртаций и пояельств на прив чество" Беля вна о депрши крйого населня Росси в 30-40-х годх вна воря , М : МКСА 1997, с. 202-203.

12) 신범식, "소련의 북한 군사지원"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 568-574.

13) 안정애, "소련의 대북한 군사원조 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1945-1950)." 『군사』 제38호, 1999, pp. 161-182; 양영조, "소련의 대북한 군사정책(1948-50)." 『군사』 제39호, 1999, pp. 135-162; 국방부, 『6·25전쟁사』 1-6,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2009; 박찬만, 『주북한 소비에트연방군사고문단의 역할과 기능』,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4) 최용호,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분석." 『군사』 제43호, 2001, pp. 32-33.

되지 않은 소련 군사고문단 조직 그 자체의 활동 역사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료는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한 과정이 군사고문단을 중심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직접 밝혀줄 역사에 관한 것이다. 소련 문서보관소 내 사료를 분석한 논문이 등장하였으나 군사고문단 조직 자체를 종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sup>15)</sup> 그러나 아직까지 소련 군사고문단이 직접 작성한 혹은 그들에 대해 종합평가한 보고서 등이 공개되지(또는 발굴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러시아 국방부 문서보관소의 문헌 중 군사고문단장을 지냈던 라주바예프가 본국정부에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전투활동사 기술(記述)’ 임무를 띤 장교가 있었음을 밝힌다. 이처럼 소련 군사고문단이란 조직이 그리고 그 조직이 활동했던 역사를 기술할 임무를 띤 장교가 존재했다는 역사적 실체가 엄존했음에도 그들의 조직과 규모 그리고 구체적 활동을 보여주는 종합 결과보고서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약 있으면서도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비는 여전히 소련군의 6·25전쟁에 대한 역할 등에 대한 분석과 해석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많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 주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이같은 인식 하에 그동안 정리된 소련 군사고문단 조직에 대한 연구성과를 살펴보고 연구축진을 제기해 본다.

### III. 소련 군사고문단 설립배경과 운용방식

소련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직후부터 대외 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혁명 이념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군사물리력을 각국에 보급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련이 전개한 대외 군사활동은 지역

분쟁과 무장충돌 현장 그 어느 곳이든 사회주의 혁명과 이념에 따라 국가를 건설하거나 수호하려는 세계 각 지역에서 전개되었다.

소련의 대외 군사활동은 외국의 군사요원을 자국으로 초청하거나 혹은 자국의 군사전문가를 외국에 파견하여 군사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소비에트 정부는 1920년대 초 사회주의 혁명 이념에 기초한 군사독트린을 사회주의 동맹국들이 습득하고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련이나 동맹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군사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것이 이른바 ‘소비에트 외국군사전문가 양성시스템’(Совская система подготовки иностранных вое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 ИВС)이다.<sup>16)</sup> 여기서 배출된 군사전문가는 고도의 전투력과 사회주의에 대한 도덕적 충성심을 갖춘 전사나 다름없었다.

소련의 외국군사전문가 양성과정은 1920~30년대 대규모로 전개되었다. 사회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동맹국들을 소비에트 블록에 흡수하기 위해서라도 각국에 대규모 군사력을 창출하는데 지원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참여한 국가는 소련의 주변국인 동유럽,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터키, 몽골, 중국, 북한뿐만이 아니라 멀리 서유럽의 독일과 스페인까지 확대되었다.<sup>17)</sup> 북한의 경우 1940년대 초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유격대가 소비에트 정부의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훈련 등<sup>18)</sup> 교육과정을 거쳐 양성된 것 또한 외국군사전문가 양성 일환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한반도의 해방과 더불어 조선공작대 일원으로 파견되었다.<sup>19)</sup> 이러한 양성 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파시스트, 군국주의 국가와 팽팽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던 때까지 지속되었다.

1940년대 중반 제2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미국과 연합하여 넘긴 소련은 곧이

15) 기광서,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소련 군사고문단의 역할” 『한러 군사협력 관계의 어제와 오늘』 (2004년 7월 2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러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pp. 37~48; 안승환, “주북한 소련 군사고문단의 북한군 지원활동(1946-1953년).”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 350.

16) Кривоно А. Р., “Взаимосвязь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ойна в Коре 1950-1953 гг.: Взгляды через 50 лет』, М.: Грифи К, 2001, с. 157.

17) Кривоно А. Р., там же, с. 157-158.

18) 훈련 내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글은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p. 379.

19)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서동만·남기정 역, 『북조선 - 유격대 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서울: 돌베개, 2002, pp. 59-69.

어 전후 국제질서를 양분한 미국과 세계적 규모의 냉전을 치러야 했다. 파시스트 국가로부터 일국사회주의 국가인 ‘조국 소련’을 수호했던 일은 이제 자본주의 진영으로부터 신생 사회주의 ‘진영’을 엄호하는 일로 공간적으로 확대되었다. 소련은 자신의 국경 주변 경계지역이나 제3세계 사회주의 동조지역에 대한 강화 수단으로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대외 군사원조를 모색하게 된다.

소비에트 역사가 크리보루치코(Криворучко А. Р.)는 소련의 대외 군사원조 활동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소련제 군사장비 및 무기에 대한 지원, 습득, 수리 등 운용지도, 외국군 간부 및 군사전문가 양성, 군사기술 협력, 군사작전 계획 수립 및 전시 공동보조, 그리고 더 나아가 참전을 통한 직접 지도 등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군사고문을 파견하여 현지 군 간부를 양성해 군대를 창설하는 것도 대외 군사원조 활동의 한 방편으로 제시하였다.<sup>20)</sup>

또 다른 소비에트군 출신 역사가 키르신(Кирилин Ю. Х.)도 군사고문단이 신생국 군대 건설에 끼친 영향을 높게 평가하였다. 군사고문단의 협조가 없었다면 북한군 건설이나 6·25전쟁과 같은 오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sup>21)</sup> 그러면서 그는 군사고문관이 정치장교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고 언급하였다.<sup>22)</sup> 앞서 열거한 군사고문단의 역할에 또 하나의 임무에 의미부여한 것이다. 이는 북한군 총사령부와 사단급 사령부 내에 배치된 군사고문관의 역할이 단순히 군사분야 전문가로서만이 아니라 정치장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예로 볼 수 있다. 특히 1949년 4월 이후 1950년 2월까지 군사고문단장을 겸한 슈티코프 주북 소련 대사는 군사적 임무보다도 정치적 임무에 치중해 모스크바와 평양간 쟁점사안 협의하여 의견을 조정하기도 했다.

냉전 시기 소련의 대외 군사협력 양상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20) Криворучко А. Р., там же, с. 159.

21) Кирилин Ю. Х., Советские военные советники в КНДР ([http://eurasia/upf.org/](http://eurasia.upf.org/)) (검색일 : 2014, 2, 04).

22) Кирилин Ю. Х.,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 уроки и выводы” Мисс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МО РФ, 2000.

방향은 장기적 관점에서 동맹국을 구축하고 통제 내지 관리할 수단으로 군사지원을 추진하였다. 이럼으로써 현안을 해소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추진한 데서 벗어나 소련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 표 1 > 소련의 외국 군사전문가 양성 시스템의 변화

시기별 단계	시스템 명칭	과정
제1단계 (1920~WWII)	소비에트 내 외국 군사전문가 양성(ИВС)	1단계 : 현지국의 군사전문가 양성 요청 2단계 : 소련에서 군사전문가 양성 후 파견
제2단계 (WWII~현재)	소비에트 군사고문 내지 군사전문가 파견(СВС)	1단계 : 현지국의 군사전문가 파견 요청 2단계 : 소련의 군사전문가 파견 후 양성

두 번째 방향은 기존의 군사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일이었다. 기존의 군사전문가 양성방식은 외국 군사요원을 초빙 교육하여 배출하는 다소 소극적인 방식이었다면, 이를 탈피해 ‘소비에트 군사고문관 내지 군사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직접 전문가를 양성하고 조직하는 시스템’(Система обучения в организации и подготовки советских военных советников и специалистов : СВС)을 구축하는 것<sup>23)</sup>으로 전환한 것이다. 전문적인 군사고문이나 군사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함으로써 신생국의 군 간부를 현장에서 직접 양성하고 지원하는, 이럼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외 군사협력을 펼치는 방식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킨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소련의 대외 군사원조 활동은 파견된 군사고문단이 현지국의 군대를 건설하는 지원을 넘어 동맹국 관계를 구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리고 분쟁 현장에 직접 참전하여 사태를 해결 짓는 군사원조 활동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해당 국가의 군사력을 구축해 국가방위력을 높이되 소비에트에 우호적인 국가를 만들어 소비에트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을 형성하려 했음은 물론이다.

23) Криворучко А. Р., там же, с. 158.

### IV. 소련 군사고문단의 조직구성과 활동

#### 1. 조직 설립방식

소련 정부는 군사고문 내지 군사전문가를 해외로 파견하는 문제란 전적으로 지도부가 결정할 중차대한 사안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소련이 해외로 군사고문단을 파견할 때에는 군사고문단 선발 및 파견 그리고 그 운용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였다. 우선 군사고문단을 해외로 파견할 때에는 군사현안이 걸린 지역분쟁 당사국의 공식서한을 받아 추진하였다. 우선 소련 공산당 정치국이 현지 당사국의 요청을 검토비준하면 내각회의가 결정하여 추진하였다. 소련 지도부가 군사고문단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결정하면 무력부 내 대외군사협력 담당부서가 요원 선발과 파견을 신속히 처리하였다. 그 처리는 소련군 총참모부 제2 총국에서 실행하였다. 정책결정 과정을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2 > 소련의 군사전문가 파견절차

1) 공산당(정치국) : 비준
2) 내각(회의) : 결정
3) 무력부(대외협력국) : 선발/파견
4) 소련군 총사령부 : 실행
5) 제2총국 제10과 : 주무

앞서 언급했듯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외국 군사요원을 초청하여 소비에트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로 교육하고 훈련시켰다. 그러나 전후에는 세계

적 차원의 진영간 대립이 냉전으로 소련은 자국 군사전문가를 현지국에 직접 파견하여 군사전문가를 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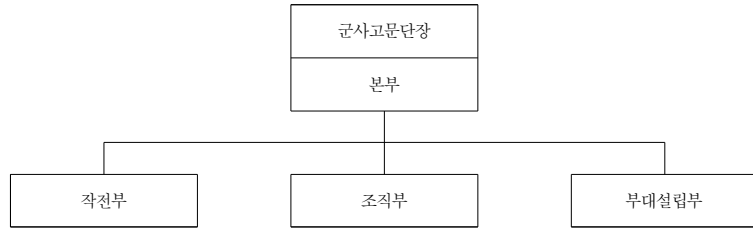
1930년대에는 그 담당부서가 소련군 총참모부 제2총국 산하 제10과였다. 그런데 제10과였던 담당부서가 1951년 3월 제10총국(10-служба)로 확대 개편되었다. 여기서 해외로 파견될 군사고문과 전문가가 선발되어 교육을 받았으며 현지에 배치하여 실무지도를 맡도록 하였다.<sup>24)</sup> 제10총국은 제2총국의 한 부서였던 군사고문단 담당기관이 한반도에서 발생한 전쟁과 관련하여 확대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극동지역 한반도에서 발생한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지 5년도 채 안되어 발생한 국지적 지역분쟁이지만 세계 대전으로 전화될 위험성이 농후한 중대 사안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군사고문단의 활동 역할이 증대되었고 이를 관장할 조직은 확대되어 그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사고문단은 군사고문, 군사교관, 군사전문가, 통역원 그리고 사무 및 기술 보조요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소비에트 군사고문단 요원은 보통 군사아카데미를 이수하여 소비에트 군사교리에 밝고 군 지휘관으로서 실전 경험이 풍부한 자가 선발되었다. 이들은 전문성과 전장 특성에 대한 인식이 높고, 현지국 사정에 밝아야 하며 그리고 현지 주민의 습관이나 전통에 정통해야 하였다.<sup>25)</sup>

군사고문단은 고문단장을 필두로 작전부, 조직부, 부대설립부로 구성되었다. (<표 3> 참조) 본부는 전체 군사고문단을 관리하고 행정 지원하는 일을 맡았다.

24) Гинс урвене мжмртно конто соуднств 1951-2001. М., 2001, с. 94; 안승환, 위의 논문, p. 360.  
 25) 안승환, 위의 논문, p. 367-368.

< 표 3 > 소련 군사고문단 조직구성



2. 역대 군사고문단장의 역할

초대 소련 군사고문단장은 1946년 9월 북한에 파견된 스미르노프(Смирнов И.И.) 소장이었다. 소련 무력부 차관 불가닌의 승인 하에 장성과 장교 346명과 함께 파견되었다. 이들이 입국한 8월 15일에 북한에는 향후 북한 정규군의 실질적인 모태가 된 보안간부훈련대대부가 창설된 상태였다.<sup>26)</sup> 보안간부훈련대대부는 단순한 국내 치안문제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점령군인 소련군이 치안을 맡도록 허용한 보안대가 전국 단위의 조직과 규모를 갖추자 전문적으로 보안간부를 보충과 훈련시키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명칭상으로는 보안간부 훈련이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북조선 지역의 모든 무력기관을 통합지휘하며 언젠가 편성될 정규부대를 대비한 최고참모부라는 평가다. 당시 부군사고문단장이었던 소지노프(Свинов В)는 군사고문단의 임무는 군장교들을 훈련시키고 정규군 편성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하였다.<sup>27)</sup> 이 즈음에 소련 군사고문단이 입북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스미르노프는 정규 조선인민군 창설에 대비하여 초급장교를 양성하고 부대를

신설, 운영하는 일을 지원하였다. 그의 3년에 걸친 재임 기간 중인 1948년 2월 8일, 소련 군사고문단 조직이 법제화되었다. 그 후 소련군 잔여 병력이 완전 철수한 이후에는 합법적으로 파견된 군사고문단 단원만이 잔류해 활동하였다. 고문관 선발과 파견 역시 소련과 북한간의 공식 절차에 따라 구조적으로 실시되었다.<sup>28)</sup> 이는 곧 군사요원의 선발 및 파견 방식에 커다란 전환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임시방편적으로 현지 파견 군인 제25군에서 군사고문단 요원이 차출되는 것이 아니라 1949년부터는 모스크바 중앙에서 정식으로 선발되어 파견된 군사고문단 요원이 활동하게 된 것이다.

북한 정부가 수립된 이후 초대 주북한 대사로 슈티코프 상장이 임명되자, 그는 5명의 장성, 대좌 12명, 중좌 20명 그리고 소좌 이하 약 40명 등으로 구성된 특별 군사사절단(военный миссия)을 대동하여 하얼빈을 거쳐 북한에 파견되었다.<sup>29)</sup> 1949년 1월 말에 들어온 이들은 1949년 5월까지 활동하였다. 이들은 법제화되어 공식적으로 파견된 군사고문단 일원으로 기갑 병기의 권위자인 장군을 포함하여 상륙작전 및 정보, 연락, 수송, 보급 전문가로 구성되었다.<sup>30)</sup> 앞서 군사고문단 파견절차를 언급했듯이 우선 파견된 군사고문단장이 김일성과 사전 회담을 통하여 고문관 파견에 합의하고 그 다음으로 김일성이 본인 명의로 스탈린에게 공식 요청서를 보내면 소련 무력부가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내각회의를 거쳐 파견하는 방식이 정형화되었다.<sup>31)</sup>

1949년 4월 21일에 부임한 제2대 군사고문단장으로 북조선 주재 소련대사인 슈티코프(Штиков Т.Ф)가 맡게 되자 조직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 그는 스탈린의 지시를 받아 김일성의 정치, 군사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군사고문단장과는 달리 스탈린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26) 국방부, 『6·25전쟁사 1. 전쟁의 배경과 원인』,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 245~252.  
 27) "발렌틴 소지노프(전 소련 부군사고문단장) 증언" (KBS와의 인터뷰, 1992. 5. 모스크바); 김광운, 『북한정 치사 연구 1』, 서울: 선인, 2003, p. 577.

28) 안승환, 위의 논문, p. 368.  
 29) 칼리노프 K., "소련은 어떻게 북한인민군을 건설했는가?" 『북한』 1988, 6월호, p. 50.  
 30) 칼리노프 K., 위의 논문, pp. 51~65.  
 31) 안승환, 위의 논문, p. 369.

6·25전쟁의 준비와 전개과정에서 군사문제 최고 현안은 김일성의 의사나 요청에 슈티코프의 판단이 첨부되어 스탈린에게 보고되었다. 거꾸로 스탈린의 결정은 소련군 총참모장을 거쳐 산하기구나 군사고문단장에게 하달되어 추진되었다.

물론 능력을 인정받고 있던 슈티코프라 하더라도 스탈린은 군사고문관 파견과 같은 중대 임무를 충실히 충실하지 못한다 판단하면 직접 질책을 가하기도 하였다. 1950년 7월 8일 스탈린은 “슈티코프 당신은 조선의 대표가 아니라 소련의 대표”라면서 상부의 의중을 물어보지도 않고 조선에게 군사고문을 파견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질책하였다. 그러면서 스탈린은 북한이 요구한 인원대로 고문을 파견하되 “편복을 입게하고 ‘프라우다’ 기자로 가장하여 전선 참모부나 방면군 부대로 배치하라”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지시내렸다. 또한 슈티코프 “당신은 소련 정부에 대하여 고문관들을 적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며 못 박았다.<sup>32)</sup>

1950년 2월 제3대 군사고문단장 바실리에프(Васильев Я. В)가 부임해 왔다. 그는 주북 소련 국방무관을 겸직했었다. 비록 그는 여전히 김일성 군사고문으로 활동하였지만 대사급이 아닌 국방무관이었다. 이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보다 강화되는 시점에서 정치협상 문제보다는 군사협력의 효율성을 더 기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임무란 북한인민군의 남침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전쟁 준비태세를 완비하여 초기 전쟁을 수행하는 일이었다. 전형적인 군인이었던 바실리에프는 발생한 사안을 스탈린에게 직접 보고하진 못했다. 보고서는 우선 러시아군 총참모장에게 보내져 그의 판단을 거친 후 스탈린에게 보고되었다.<sup>33)</sup>

1951년 1월부터 제4대 군사고문단장으로 라주바예프(Рауцев В Н) 중장이 부임하였다. 그는 군인으로서 북한 주재 대사직을 수행하면서 국방무관 업무

까지 맡았다. 전시 특수사정이 감안된 듯하다. 역대 군사고문단장의 직책과 임기는 아래 <표 4>와 같다.

< 표 4 > 북한에 파견된 역대 소련 군사고문단장(필자 정리)

순서	이름	계급 및 직위	재임 기간
1대	스미르노프	소장, 군사고문	1946. 9. ~1949. 4. 21
2대	슈티코프	상장, 대사, 정치·군사고문	1949. 4. 21~1950. 2. 23
3대	바실리에프	중장, 국방무관, 군사고문	1950. 2. 23~1950. 11. 22
4대	라주바예프	중장, 대사, 국방무관	1951. 1. ~1953. 4.

### 3. 조직편제와 규모별 활동

소련 정부가 북한으로 군사고문단을 파견키로 결정한 것은 1946년 8월이었다. 이 당시 파견장교로 선발된 장성 3명, 장교 343명은 러시아 중앙이나 지방 군조직에서가 아니라 북한으로 이미 진주해 들어 온 제25군에서 차출하였다<sup>34)</sup>. 당시 북한에는 보안간부훈련대대부라는 보안대 조직이 편성되어 있었다. 이 조직이 북한의 첫 정규 무력기관으로 미래의 인민군 건설의 전신인 셈이다.

북한에 도착한 소련 군사고문단은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산하의 각 훈련소와 군사학교에 배치되어 신병 훈련과 간부 교육을 지원하였다. 당시 북한에 파견된 군사고문단의 임무는 당시 얼마 되지 않는 구성원이나 보안간부 구성원에 대한 군사훈련 등 주로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일이었다. 이 조직이 그 후 북한의 정규 인민군으로 전환되었으니 소련 군사고문단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음은 물론이다.

북한 주재 소련 군사고문단 편제는 북한 군사 최고기관과 예하 단위 및 통합부대에서 군사고문관의 활동을 체계화하고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맞춰졌다. 따라서 군사고문단장을 정점으로 군사고문 요원은 현지국 군의 총참모부, 총정

32) 심지화 편, 『조선전쟁 : 러시아』 김순규 역, 『6·25전쟁 : 러시아 문서보관소의 비밀해제 문서』 상권 (군사편찬연구소 미간행자료).

33) 당시 소련군 총참모장(임기)은 바실리엠크스키(Васильев А. М) 원수(1946. 3~1948. 11), 쉬체멘코(Шевченко С. М) 상급대장(1948. 11~1952. 5), 소콜롭스키(Соколовский В. Д) 원수(1952. 5~1960.4)였다.

34) ЦАМО ф. 40, оп. 178428, л. 90, л. 120-121.

치국 그리고 각종 병종부대와 군사학교 등에 배속시켜 직접적인 지도와 조언을 줄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주북한 군사고문단장은 북한 민족보위성과 인민군 최고사령관 산하에 배속되었고 고문관들은 인민군 각 병종의 연대급 이상의 부대에 배치되었다. 최고사령관 산하의 경우 총참모부와 작전국 내 고문관 그리고 사단 및 각 병종사령관 고문으로 배치되었다. 특히 여단급 이하 군사학교나 강습소 등에 배치된 고문관들은 북한군 지휘관 양성 업무를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은 소련군 편제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소련군 교육 프로그램 및 교범에 따라 장교들이 양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아래의 <표 5>는 소련 군사고문관의 북한군 산하 사단급과 여단급 배치편제를 보여준다.

< 표 5 > 북한군 산하 소련 군사고문단 편제

북한군 산하 사단급 이상 편제	
1. 군사고문단장	
2. 총참모부 선임고문	1
3. 각 병종부대 사령관(총참모부 병종부대 담당국장 겸임)	10
4. 총참모부 작전국 소속 고문	18
5. 사단장 고문	5
합계	34

북한군 산하 여단급 이하 편제	
1. 각 부대의 여단장 및 부여단장 군사고문	15
2. 연대장 및 부연대장 군사고문	68
3. 대대장 및 부대대장 군사고문	8
4. 군사학교 교장과 부교장 군사고문	9
5. 군사학교 담당과장과 교원 군사고문	28
6. 각종 부대와 부서 산하 분과의 군사고문	39
7. 일반 및 종합병원의 군사고문	6
8. 군사전문가	29
합계	202

출처 : 안승환, “주북한 소련 군사고문단의 북한군 지원활동(1946-1953년).”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 372.

소련 군사고문단의 조직 규모는 연도별 최대 2,000명 혹은 3,000명, 심지어 4,000명까지 파악하기도 한다. 문제는 조직 편제에 따른 정원이 제대로 갖춰진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활동한 소련 군사고문단 조직 그 자체에 대한 종합보고서와 같은 문건이 공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니 조직 규모와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당연한 지도 모른다. 게다가 소련 군사고문단 총인원은 북한의 정세나 전황 그리고 인민군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었기에 그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란 수월한 게 아니다. 다만 그동안 드러난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필자는 추가로 수집발굴한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규모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1946년 8월 경 제25군 장군과 장교들로 선발된 군사고문 인원은 3명의 장군과 343명의 장교, 즉 346명이 근무했다. 1948년 2월 군사고문단이 법제화될 당시 470명으로 늘었다.<sup>35)</sup>

1948년 9월, “소련 각료회의는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가 소비에트 부대의 철수를 늦어도 1948년 10월 착수하여 1949년 1월 마지막까지 철군을 완료 하겠다.”<sup>36)</sup>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소련군은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12월 말에도 소련군은 장군 1명, 장교 173명 그리고 하사관 35명 등 총 209명의 군사고문단의 인원은 다소 축소된 채 북한에 잔류하고 있었다.<sup>37)</sup> 이들은 주북한 소련대사인 슈티코프가 추가로 군사고문단장 임무를 부여해 받았을 때 같이 입북한 장교들로서 기갑분야 만이 아니라 다양한 특수전 전문가들이었다. 즉 “북한군 철군증명서”에서처럼 완전 철군한다던 소련군이 여전히 군사고문단 형식으로 잔류하여 북한군을 지원한 셈이다. 이때 잔류한 군사고문단원들은 기갑, 포병,

35) Злодарев В. А. (ред.) и др. Россия(СССР) в лозьных войнах и войнах юдификах вострой половины XX века М.: 2000, с. 68.

36) “소련군 철군증명서.” ЦАМО ф. 40, оп. 178427, д. 90, л. 99; 심현용·가브리엘로프(공편), 『6·25전쟁 연구경향 및 자료해제(Крейськая война 1950-1953 г. :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архивы)』,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pp. 408~409.

37) ГАРФ, ф. 5283, оп. 18, л. 217, л. 25-26; 안승환, 위의 논문, p. 370.

정보 등 등 특수분야 군사전문가들로서 실제 전투에 활용토록 북한군을 교육시켰다.

1950년 1월 1일 기준으로 소련 군사고문단 인원 236명이 북한에 존재했다는 러시아 국방부 산하 중앙문서보관소(ЦАМО) 자료가 나왔지만 미간행 자료집을 통해서이다.<sup>38)</sup> 1950년 3월 1일에는 148명, 6·25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5월 16일에는 236명으로 변동되었다. 그리고 전쟁 발발 이후인 1950년 11월 17일에는 123명, 11월 29일에는 다시 246명으로 편제가 바뀌었다.<sup>39)</sup>

러시아 국방부 중앙문서보관소 자료에 따르면, 1950년 12월 들어서 다시 군사고문단 인원이 <표 6>에서처럼 177명으로 줄어들었다.<sup>40)</sup> 전황에 따라 부대 규모의 변동이 초래되었고 그에 상응하게 군사고문단 인원이 변경된 게 아닌가 추정할 뿐이다. 다만 177명으로 축소된 이 인원은 소련 총참모부 제2총국장이 통지문을 통해 전달한 사항이므로 신뢰를 줄 수 있다.

< 표 6 > 1950년 12월 2일 시점의 중국, 북한 소련 군사고문단 편제표

국가	고문관		교관				통역관				수행원				독립업무담당자							
	장군	군관	장군	군관	하사관		장기 부부	단기 부부	군관	장기 부부	단기 부부	고용원 인원	군관	장기 부부	단기 부부	고용원 인원	장군	군관	하사관		고용원 인원	
					장기 부부	단기 부부													장기 부부	단기 부부		
중국	17	381	-	588	17	374	-	50	-	15	12	-	3	13	7	10	-	-	-	-	-	-
북한	2	142	-	-	-	-	1	12	-	-	9	-	-	1	-	10	-	-	-	-	-	-

출처 : **Вранов В.Н.** 전현수기광서 역,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과천 : 국사편찬위원회, 2006, p. 568.

38) 안승환, '위의 논문', p. 372. 2000년 6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국전쟁 발발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크리보루치코가 발표한 자료를 안승환이 확인한 것이다.  
 39) 안승환, '위의 논문', p. 370; 기광서,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소련 군사고문단의 역할." 『한러 군사협력 관계의 어제와 오늘』 (2004년 7월 2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러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p. 46.  
 40) "Ведомость боевого состава войск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находящаяся в Китае и Корее на 2 ок. 1950 г." ЦАМО, ф 16, оп 3139, л 16, л 133-134; **Вранов В.Н. (ред.)** *Война в Корее 1950-1953 гг.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М : ИВИ МО РФ 1997; 전현수기광서 역,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과천 : 국사편찬위원회, 2006, p. 568.

1951년 2월 16일자로 라주바예프 군사고문단장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군사고문단원은 151명이었다. 대부분 총사령부, 군사학교, 그리고 교육부대 등에 배속되어 해당 조직을 관리하고 강화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이 중 특이하게도 33명의 영관 장교가 북한군 제1군, 4, 6, 7군에 각각 6, 9, 9, 9명이 배치되어 활동한 점이다. 나머지 제2, 3, 5군에는 인원이 없었다. 이들은 북한군 내 '전투활동사 기술(記述)' 목적의 군사고문단원이 배치되었음을 밝혔다.<sup>41)</sup>

< 표 7 > 북한군 배속된 전투활동사 기록업무 담당 군사고문단원 인원수(필자 구성)

군단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	7군
인원	6	0	0	9	0	9	9
계	33						

제1군의 경우 군사령관 선임고문에 대령 칼리야킨(**Калин**), 군참모부장 고문에 대령 오부호프(**Обух**), 포병사령관 고문에 대령 코스친(**Косин**)과 소령 포발리(**Павий**), 통신부장 고문에 대령 마찰스키(**Мачульский**) 그리고 공병부장 고문에 대령 벨리카노프(**Великанов**)가 각각 담당하였다. 이들이 곧 군사고문단 활동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종합보고서도 작성되었을 것을 가능하게 한다. 소련 국방부 비공식자료를 보면, 1951년 4월 23일 당시 중국군에는 986명, 북한군에는 202명으로 파악되었다.

1952년 3월 소련 군사고문단 인원은 다시 152명으로 다소 조정되었으나 전쟁 발발 직전의 236명을 넘진 못하였다. 당시 휴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참모장 슈체멘코가 각료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휴전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 지를 감시할 필요가 있어 외국 군사고문단은 철수해

41) ЦАМО, ф. юзгвнцл л 34-35. 이 문건은 1951년 7월 14일 소련 극동방면군 부사령관 고글라초프(**Горько**) 대좌가 보고한 것이다. 그는 1951년 2월 16일자로 라주바예프가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주북 군사고문관 배치현황 증명서"란 제목으로 보고하였다.

야 한다.”고<sup>42)</sup> 했다. 그러나 미군이 감시위원회 대표를 자유로이 이동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소련 국방장관 소련의 이익에 따라 부대나 고문단이 북한에 실재하도록 정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내각과 각료회의 상임위원회 뷰로에 요구한 결과로 판단된다.<sup>43)</sup>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소련 정부는 북한에서 활동 중이던, 즉 각 사단에 배속된 군사고문단원을 만주로 철수시키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모든 부대, 집단군 그리고 군사무관 15명을 제외한 모든 군사고문단원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하였다.<sup>44)</sup> 그러나 군사고문단원의 철수는 전쟁이 끝난 지 4년이 지난 1957년 5월에야 마무리된다.

## V. 새로운 사료의 공개를 기대하며

소련 군사고문단은 북한에서 소비에트식 사회주의 국가와 군대 체제가 갖추어지고, 군사력을 확충하는 전 과정에 나타나 자기 임무를 수행하였다. 소련 군사고문단이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했던 기간은 1948년 12월에서 1953년 7월까지이다. 그러나 1946년 9월 초대 군사고문단장 스미르노프가 북한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1957년 7월 휴전협정 체결 이후 마무리된 철군일까지 근 6년이나 연장되어 활동하였다.

더 나아가 소련 군사고문단은 전쟁을 수행할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전쟁을 지도함으로써 북한이 현대화된 군을 운용할 군사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전면적인 지원을 다하였다. 신생국 군대인 북한 인민군은 건설된 지 얼마 되지않은 조직이었다. 그럼에도 무력을 도발할 수 있었던 것은 짧은 기간이지만 소련으로

부터 현대화된 군사기술과 전쟁술을 전수받았기에 가능하였다. 그 실질적인 역할을 소련 군사고문단이 맡았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소련 군사고문단의 조직과 활동상에 대한 사실규명이 더욱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러시아 군사학계가 국방부 중앙문서보관소 등에 보관된 사료를 새롭게 발굴하고 소개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소련 군사고문단 조직 그 자체의 조직 구성과 활동상에 대한 문건은 공개되지 않은 실정이다.

기존에 공개된 러시아 외무부 대외정책 문서보관소나 대통령문서보관소 등에서 공개한 사료는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데 신뢰성을 높여주는 사료 취사선택과 배열에 있어 편집자의 주관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치적 고려 등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여전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련이 한반도 상에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전투이행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 ‘소련 군사고문단의 지원 아래 공격작전계획이 수립되고 ..... 이루어졌다’는 공식화된 설명에서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는 비판<sup>45)</sup>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단편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사료 수개로는 군사고문단 조직 그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요원한 현실이다. 다만 본고에서 필자가 수집, 발굴하여 제시한 문건, 즉 1951년 2월 16일자로 라주바예프가 보고한 북한군 내 군사고문단 현황에서 ‘전투활동사 기술(記述) 임무’를 띤 군관이 각 군단에 33명 배치되었다는 내용은 군사고문단 조직에 대한 종합평가서의 존재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러한 원사료가 공개 내지 발굴된다면 주북한 소련 군사고문단 조직에 대한 종합적 연구의 지평이 열릴 것이다.

물론 그동안 공개되고 조사된 문서에 대한 사료분석을 통해서라도 과거사가 재정립되고 미래로 나갈 동반자 간의 역사인식이 공유되길 기대한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공개되었던 군사자료 목록에 소련 군사고문단의 조직활동에 대한 종합보고 기록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원사료의 조속한 공개와

42) 1951년 9월 당시 미국이 파악한 한반도 내 러시아출신이 25,000명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그 중 15,400명은 소련군에서 복무하고 있다 하였다. ЦАМО, ф югввкв, л 34-35.

43) ЦАМО, ф югввкв, л 34-35.

44) ЦАМО, ф югввкв, л 36.

45) 안승환, 위의 논문, p. 375.

그로부터 촉발될 연구자의 의문점이 해소되고 역사의 하얀 공백이 메워지길 바랄 뿐이다.

참고문헌

기광서,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소련 군사고문단의 역할.” 『한러 군사협력 관계의 어제와 오늘』 (2004년 7월 2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러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김광운, 『북한정치사 연구 1』, 서울 : 선인, 2003.

국방부, 『6·25전쟁사 1. 전쟁의 배경과 원인』,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4.

국방부,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꼬로트코프(Коротков Г.И), 이견주 역, 『스탈린과 김일성』 상하, 서울: 동아일보사, 1992.

류제승, 『6·25,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서울: 책세상, 2013.

박동찬, “전쟁기 주한 미군사고문단(KMAG)의 활동.”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박동찬, “주한 미군사고문단(KMAG)의 조직과 활동.”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박동찬, “한국전쟁기 미국의 증강구상과 장교교육의 강화.” 『군사』, 국방군사연구소, 제39호, 1999.

박찬만, “주북한 소비에트연방군사고문단의 역할과 기능.”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발렌틴 소지노프(전 소련 부군사고문단장) 증언”(KBS와의 인터뷰, 1992. 5, 모스크바)

신범식, “소련의 북한 군사지원.”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심지화 편, 『조선전쟁: 러시아』, 김순규 역, 『6·25전쟁: 러시아 문서보관소의 비밀해제 문서』 상권.(군사편찬연구소 미간행자료).

심현용, “한국에서의 6·25전쟁 연구경향.” 심현용, 가브리엘로프(공편), 『6·25전쟁 연구경향 및 사료해제(Крейская война 1950-1953 гг. : Историография и археография』,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안승환, “주북한 소련 군사고문단의 북한군 지원활동(1946-1953년).”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안정애, “소련의 대북한 군사원조 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1945-1950).” 『군사』 제38호, 1999.

안정애, “주한 미군사고문단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양영조, “소련의 대북한 군사정책(1948~50).” 『군사』 제39호, 1999.

양영조, 『한국전쟁과 동북아 국가정책』, 서울: 선인, 2007.

- 유성철, “나의 증언(8)-(9).” 『한국일보』, 1990. 11. 9.
-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 정토웅, “1945-1948년 미군정시대 한국인 창군주역들과 미국 군사고문들 간의 협력과 갈등.” 『군사』 43호, 2001.
- 조이현, 『1948-49년 주한미군의 철수와 주한 미군사고문단의 활동』,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 학위논문, 1995.
- 최용호, “‘라주바에프의 6·25전쟁 보고서’ 분석.” 『군사』, 제43호, 2001.
- 칼리노프 K., “소련은 어떻게 북한인민군을 건설했는가?” 『북한』 1988, 6월호.
-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전쟁 특별연구반, “1950년 9월 27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록 N. 78(4).” 『만수로프 제공문서』.
- HQ, USAFIK, *Record Group 319, G-2 Periodic Report(1945. 9 - 1949. 6)*, Suitland, Md. : Federal Records Center Annex. (영인본 : 『주한미군 정보일지』 1-8권,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8-1989).
- HQ, USMAGIK, *G-2 Periodic Report(1949. 7. 26 - 1950. 6. 15)*, (영인본 : 『주한 미군사 고문단 정보일지』 1-2권,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 24th Infantry Division, G-2 Journal, Vol.1, 25 June - 3 July 1950, 1-110U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USGPO, 1961.
- Hausrath A. H., *The KMAG Advisor : Role and Problems of the Military Advisor in Developing an Indigenous Army Combat Operations in Korea*. Operations Research Offic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7.
- Kalinov, Kyrio, “How Russian Built the North Korean Army ?” *The Reporter* (26 October, 1950).
- Skaggs D. C. and Weinert R. P., *American Military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rmy 1951-1965*, undated.
- Stelmach, Daniel S., *The Influence of Russian Armored Tactics on the North Korean Invasion of 1950*. Ph. D. Thesis, Department of History, Saint Louis Univ., 1973.
- “소련군 철군증명서.” ЦАМО, ф. 40, оп. 178427, д. 90.

- Врагов В Н(ред), *Война в Коре. 1950-1953гг.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М : ИВИ МО РФ, 1997; 전현수, 기광서 역,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국사편찬위원회, 2006.
- “Ведомость боеисчисления состава войск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находившаяся в Китае и Коре на 2 окт. 1950 г.” ЦАМО, ф. 16, оп. 3139, д. 16.
- Война в Коре 1950-1953. Взгляд через 50 лет*, М, 2001.
- Война в Коре 1950-1953*, СПб : Изд-во Гелиос, 2003.
- Золотарев В А(ред) и др, *Россия(СССР) в локальных войнах и военных конфликтах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X века*, М, 2000.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 снятии ограничений приговоров с заключенных и иных актов, служивших для массовых репрессий и посягательств на права человека.” Белякина о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в 30-40-х годах, книга вторая, М : МКА, 1997.
- Планте управл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вое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1951-2001, М., 2001.
- Золотарев В А(ред) и др, *Россия(СССР) в локальных войнах и военных конфликтах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X века*. М. : 2000.
- Книга М С, *КНР : два десятилетия - две политики* М, 1969.
- Кишин Ю Х.,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 уроки и выводы. Материалы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Институт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МО РФ, 2000.
- Кишин Ю Х, *Советские военные советники в КНДР*([http://eurasia /upf/org](http://eurasia.upf.org)) (검색일 : 2014, 2, 04).

ABSTRACT

Research on the Soviet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DPRK

Sim, Heon-Yong(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and Compilation)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research trend in South Korea and reorder the historiography on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the Soviet military advisory Group who had been dispatched to the DPRK.

Little is known about the Soviet military advisory Group because there is a limit to the research by the disclosure of 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organization itself.

The Soviets has been sending military advisers as a means of foreign military cooperation.

After the liberation of North Korea, the Soviet military advisory Group worked on the construction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reinforcement, military cadres training and didn't spare support for the Korean-war 1950-1953 from the planning stage. This is going to be another case of the Soviet Union intervening in the Korean War.

Thus, research on the organization reality itself and activities of the Soviet military advisory Group to North Korea is still at a standstill.

Razuvaev's document shows that 33 Officer charged to each North Korean corps with the duty of 'Officer describing combat activities'. It means possible presence of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initial military advisers.

If this original material is excavated, it is expected to open the horizons of a comprehensive study on the organization and activity substance of the Soviet military advisory Group.

keywords : the Korean War 1950-1953, the Soviet military advisory group, Shtykov, Razubaev, Officer describing combat activities, the Soviet system for military specialists

투고일 : 2014년 10월 31일, 심사일 : 2014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8일